

전남 서부권

신안군청 등 공공기관 내달 줄줄이 이전

길 잃은 목포 원도심 활성화

목포 원도심에 소재한 주요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원도심 활성화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목포시 북교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안군청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이 이달부터 다음달 중으로 신안과 옥암 지구로 각각 이전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업무특성상 공공기관과 관련된 각종 민사 사무 기능들이 동시에 이전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써 상권은 더욱 쪼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공기관 주변지역은 상업활동의 큰 영향으로 도심 활력을 원활하게 이끌어 온 주요 기능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영향은 유통인구 감소, 상가매출 감소, 지

가 하락 등 복합적인 결과를 초래, 도심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현상을 빚고 있다. 하당 신도시와 옥암지구, 남악 신도시 등이 본격 개발되면서 원도심이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과정에 이 같은 공공기관 이전 악순환은 원도심 활성화 시책에 최악의 사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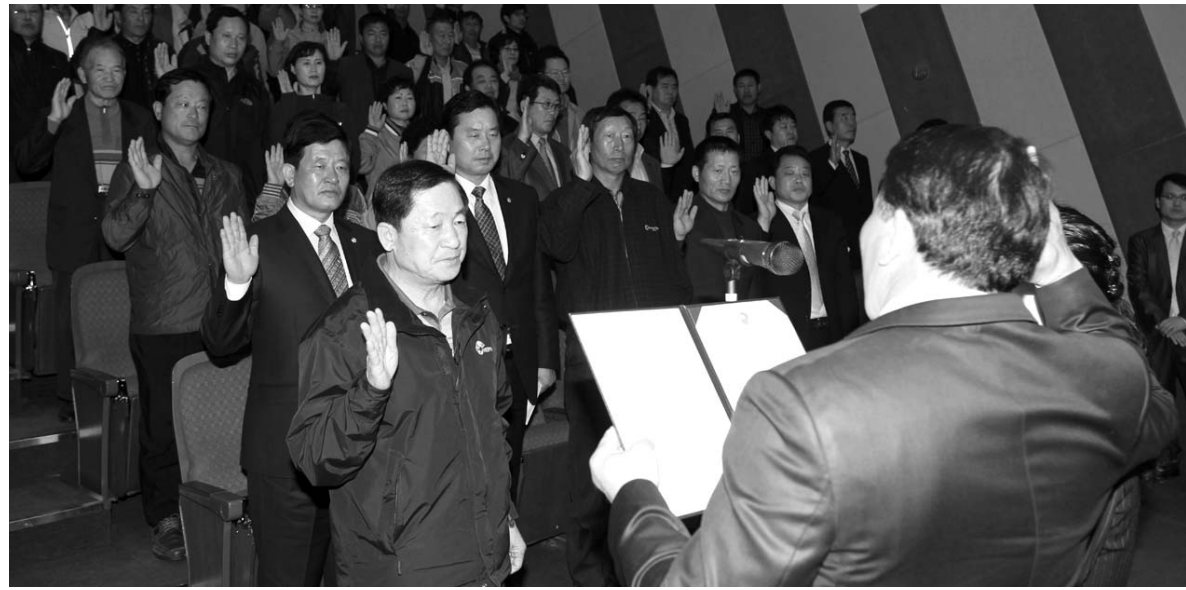
목포시는 2000년대 들어와서 원도심 공동화대책을 수립해 2005년 이후 하당 신도시를 제외한 시가지들 원도심으로 규정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 경실련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영향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의 부재와 공공

기관 이전에 따른 향후 활용 방안에 관한 대책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공식성과 역사성을 고려해 목포시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사 및 부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정보의 공유, 이해당사자들 간의 민·관 협력을 구축, 민·관 협력 특의 자체적인 논의 과정과 과제 설정, 청사 이전 대책수립에 관한 실증적 조사, 연구, 최종 활용방안 수립, 목포시와 공공기관 간의 협상과 협력,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실행 등 활용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목포 원도심 개발 핵심인 구 중앙시장 주·상·관 복합건물이 현재 공사 가 진행 중이며, 대성지구 공동주택사업이 다음달 중 착공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청정 축산 거듭나겠습니다”

한평군은 지난 한평엑스포공원 주재영상관에서 안병호 군수와 이재봉 한우협회 지부장을 비롯한 지역 축산단체 관계자와 축산농가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정(Clean)축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구타·가혹행위 없는 즐거운 軍”

목포경찰 방법순찰대 ‘미 퍼스트 결의’ 새바람

목포경찰서 방법순찰대(대장 이광현)가 전·의경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목포경찰서 방법순찰대는 ‘미 퍼스트(Me Frist) 결의 선포식’을 통해 부대내 구타·가혹행위 등 잔존 악습을 폐지했다. 또 멘토-멘티 제도 활성화를 비롯해 ▲모범대원 선발 ▲불링 등 각종 동아리 활동 ▲부대내 공부

방 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원들의 상·하 관계 개선 및 자기 계발에 힘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친서민·치안정책 서비스를 실천하고자 최용규(광주교육대학·해남 현산초등학교 근무) 이경 등 주 2회에 걸쳐 목포시 산정동 소재 ‘늘푸른 지역 아동센터’와 결연을 맺

고 전·의경 ‘폴 스테디’ 운영으로 학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방법순찰대는 사회에서 강의 경험이 있는 대원들을 선발해 학습의 질을 높이고,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의미있게 군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봉사활동을 진행, 호평을 받고 있다.

최근 전입한 정상훈 대원은 “입대 초, 전·의경 구타 사건·사고 때문에 의경지원을 후회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많았지만, 생활해 보니 지원을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군 생활이 재미있고 신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2013 수산경영인대회’

목포 개최 확정

오는 2013년에 ‘제9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 대회가 목포에서 열린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9일 군산에서 열린 차기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이사회 투표에서 국제적 해양관광 인프라 등이 잘 갖춰진 목포가 울산을 제치고 개최지로 확정됐다.

‘돈 버는 어렵, 살맛 나는 어렵, 꿈과 희망의 노래를 피자’란 슬로건으로 열린 한국 수산경영인 대회는 1만여 명의 수산인이 참가하는 전국 단위 행사다. 수산 기자재 전시, 영어 상담 코너, 특산물 판매행사, 치어 방류,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신안 증도 태평염전

내일부터 ‘소금밭 체험’

‘솔로시티’이자 천일염의 고장으로 유명한 신안 증도에서 소금밭 체험 등 ‘2011년 문화재 생생(生生)사업’이 펼쳐진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등록문화재(360호)지정과 단일염전 국내 최대 크기인 증도 태평염전에서 진행된다.

오는 12일부터 ‘바다의 기억이 지워지면 소금이 온다’는 주제로 열리며 2010년 소금 장인 시상식도 함께 한다. 소금밭 체험은 신안군의 대표적인 체험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으며 염전에서 소금 거두기, 수차 돌리기, 염전 둘러보기, 소금박물관 견학 등을 할 수 있다. 소금밭 체험 예약은 소금박물관 홈페이지(www.salt-museum.org)에서 하면 된다. 문의 (061-275-0839).

/서부취재본부=조원갑기자 wncho@

등 5개 분야 100여가지 항목에 대해 세부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7월 개관한 호텔은 딸골 관광지 활성화와 숙박시설 확충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남개발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부지 8209㎡에 객실 2개동 총 90실 규모(지하 1층, 지상 8층)로 대회의실, 세미나실, 건축·설비·주차시설, 전기·통신 시설, 소방안전 상태, 소비자 만족도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해남딸골호텔’ 1급 관광호텔 인증

해남딸골호텔이 1등급 관광호텔로 공식 인증받았다.

8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해남 딸골호텔은 최근 문화관광부로부터 호텔 등급 심사업무를 맡아 시행하고 있는 한국관광호텔업협회의 등급심

사에서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받아 1급 호텔로 공식 인증됐다.

관광호텔 등급심사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서비스 상태, 건축·설비·주차시설, 전기·통신 시설, 소방안전 상태, 소비자 만족도

“완도 분열세력 뿌리 뽑자”

두달간 군민 32,000명 서명

완도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배척하자는 자정 운동에 군민 3만2000여명이 참여해 절대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완도를 사랑하고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박경남(완도군 번영회장) 공동대표는 “지난 2월 9일 선언문 선포 이후 추진한 1, 2차 서명운동에 기관단체, 일반군민, 출향인사 등 3만2154명이 참여해 학생과 어린

이를 제외한 대다수 군민이 동참했다”며 “지역화합과 발전을 염원하는 세력들을 엄단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완도군은 군정을 흡입 내리는 일부 세력과 서울에 거주하는 사건 브로커들의 허위진정 투서로 몸살을 앓아왔다. 이에 참다못한 군민들이 지난 2월 9일 ‘완도를 사랑하고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을 결성하고 지

역 이미지를 흐리고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지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정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다수 군민들은 “완도군이 설군(設郡) 이래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관련자를 색출해 법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여론이다.

관내 S 청년회장은 “수년 전부터 일부 정치인들과 브로커들이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혐의 없음으로 판명된 사람들을 사법 기관에 고소·고발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지역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전 북

장미 수출 다변화

이달말 러시아·네덜란드 홍보활동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수출길이 막힌 전북 장미가 활로 찾아가 나갔다.

전북도는 전국 장미 수출의 73.4%를 차지하는 도내 장미가 일본 대지진으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농가가 애로를 겪음에 따라 도내 대표적 장미수출 농가인 로즈피아, aT(농수산물유통공사) 등과 함께 외국 시장 개척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달 29일은 러시아, 30일은 네덜란드에서 각각 홍보행사를 열 계획이다.

이처럼 전북도 등이 수출선 다변화

에 나선 것은 수출용 장미는 ‘스프레이’ 계열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품종과 다르고 그 크기가 매우 작아 내수 시장에서는 거의 유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각 기관 등이 나서 ‘수출용 장미 사주기’ 캠페인을 벌였지만, 매출은 미미한 형편이다.

특히 전북지역 150여 장미 재배 농가는 그동안 생산량의 97% 이상을 일본 시장에 판매해 대지진으로 바이어들의 주문이 끊겨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도내 장미는 전북 농수산식품 중 일본 수출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200억 원어치가 일본으로 건너간 ‘효자 품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본으로 수출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장미는 생육기간이 40~60일이기 때문에 3월 들부터는 다소 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지만 앞으로 생산될 장미의 수요처를 찾고자 해외 홍보에 나선다”고 말했다.

豊·美·樂 넘치는 경관 만든다

전북도, 문화·환경·역사 반영...지역특색 살리기로

전북도가 ‘풍요로움(豊), 아름다움(美), 즐거움(樂)’이 넘치는 지역의 문화와 환경, 역사를 조화롭게 반영한 경관계획을 마련한다.

전북도는 도내 해안과 도서, 역사 문화, 도로, 하천, 산림 등 유·무형의 자원으로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관계획을 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연말까지 확정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경관계획 대상은 6개시와 8개군이며, 면적은 8000여km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경관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건축, 도시계획, 조경 관련 전문가, 시·군공무

원, 경관에 관심이 있는 주민 등 130여명이 참석해 전북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대 양병이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특정 경관권역으로 계획된 새만금 권역이나 전주 한옥거리의 경우 세부적 실천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과 “경관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 등 기준마련시 창의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자연과 인간, 문화를 경관계획의 기본 가치로 삼아 유·무형의 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공공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축, 도시계획, 조경 관련 전문가, 시·군공무

육지구 등을 특정경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경관계획에 대한 용역은 올해 6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경관계획은 가로환경의 경관계획,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색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등의 경관계획에 대한 계획 및 협의 기준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지역인만큼 체계적인 경관 관리가 필요하다”며 “풍요롭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려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다같이 호흡 맞춰 “영~차~”

이 참석했다.

지난 9일 김제 죽산초등학교에서 열린 ‘제7회 축산면민의 날’ 행사 참가자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출향인 15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취재본부=홍운철기자 hnews@kwangju.co.kr

단신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11월까지 릴레이 강연

전주시 평생학습센터(센터장 김수현)는 ‘한국의 사상을 만나다’는 주제의 릴레이 강연을 오는 14일부터 11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강연은 14일 오석원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장의 ‘선비정신과 현대사회’를 시작으로 5월19일 김기현 전북대 대학원장의 ‘심산유곡의 난초를 닮은 삶, 퇴계 이황’, 6월16일 황의동 충남대 대학원장의 ‘16세기 호남의 실천적 지식, 고봉 기대승’ 등으로 이어진다.

선학순으로 50명을 모집하며 수강료는 10만원이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익산시 16일부터 17개 버스 노선 개편

익산시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106개 시내버스 노선 중 17개 노선을 개편한다.

시는 “배산·장신지구 노선을 신설한 반면 교통수요 감소 구간은 재조정했으며 평소 시간대에 이용객이 저조한 노선에 대해서

는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차량 순회횟수를 감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신도시 개발로 이용자가 늘고 있는 배산·장신지구에는 108번 노선이 신설돼 1월 78회, 12분 간격으로 영등동 방면으로 운영된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ju0418@

남원 ‘춘향골 쌀’ 18t 지원돌기

남원시 ‘춘향골 쌀’ 18t(3200만 원)이 대지진 피해 국민을 돕기 위해 일본으로 보내졌다.

미곡처리 시설에서 위생적이고 철저한 포장 관리를 한 후 부산항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福島)현에 지원된다.

윤승호 남원시장은 “남원 쌀의 판로 확보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순창 보건의원원 야간 진료실 새 단장

순창군 보건의원원 야간 진료실이 넓고 쾌적한 분위기로 새 단장했다.

보건복지부 예산 2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지역응급 의료기관 기준에 맞는 최신 시설로 바뀌어 이용환자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야간 진료실은 기존 한방과 자리로 옮겨 207㎡의 넓은 공간을 마련했으며, 제세동기 등 20여종의 장비를 최신 기종으로 교체해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